

도스토옙스키 장편소설에 나타난 죄의식 분석

- 텍스트 분석과 감정지수를 바탕으로 -

노어노문학과

권수연, 김민서, 한정화, 최승환

- I. 연구 동기 및 목적
-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죄의식
 - (2) 자연어처리 이론
- III. 실험 및 분석 과정
 - (1) 감정 분류 기준 설명
 - (2) 감정 분석 과정 설명
- IV. 감정 분석 결과
- V. 작품별 결과 해석
 - (1) 『죄와 벌』
 - (2)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 (3) 『지하로부터의 수기』
 - (4) 『악령』
 - (5) 『백치』
- VI. 결론 및 제언

I. 연구 동기 및 목적

이 연구는 도스토옙스키 장편 소설 속 죄와 관련된 감정들을 감정지수로 수치화함으로써 죄의식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여러 장편 소설에서 주인공의 죄를 소재로 하였다. 그러나 그 죄를 풀어 나가는 방식은 소설마다 다른데,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는 누가 죄인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주인공의 감정과 행위가 주어져서,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경우 어떤 죄인지 밝혀지지 않고 주인공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시작된다. 또한, 주인공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작품마다 다르다. 『죄와 벌』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죄가 정의를 위한 합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인물을 만나 심경의 변화를 겪으며, 『백치』에서는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의 죄를 목격하고도 그와 함께 잠을 자기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논지 중에서도 죄의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러 장편소설 중에서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지하로부터의 수기』, 『악령』, 『백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인공의 범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죄에 대

한 인물 스스로의 감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죄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이 한 챕터 이상 등장하는 소설이 선정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소설의 주인공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분석한다. 각 챕터의 텍스트와 특정 감정의 연관도를 측정하여 감정지수를 만들고, 높은 수치를 가진 감정들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감정들을 거쳐 죄의식에 도달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작품별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죄의식

죄의식은 특정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한 행위에 대해 내적으로 유죄 판단을 지각한 것이다(최현경, 2017). 최현경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속 형제 각각의 죄의식을 통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형제들의 죄의식이란 드미트리의 욕망, 이반의 니힐리즘, 알료샤의 부정, 스메르자코프의 분열이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로부터 호색적 특성을, 어머니로부터 세속에 대한 열망을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 그루센카라는 여성을 두고 아버지와 분쟁한다. 하지만 그루센카에 대한 사랑으로 숭고해지고 싶어하며, 이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심정을 고백하면서 죄의식을 드러낸다. 이반은 아버지로부터 무신론과 허무주의를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처벌에 대한 방어기질로 죄의식이 형성되었다. 알료샤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증오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죄의식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할 때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점에서 수동적 공격성이 보인다. 스메르자코프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고분고분하고 충직한 모습으로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사실 지독한 우울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진 분열적 인물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의 의지와 의향에 따라 내 생명을 끊는 바이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드미트리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줄 만한 언급도 없었고 그의 적개심이 아주 심했음을 고려했을 때 자살과 쪽지가 죄의식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울증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죄의식이 가장 깊게 다뤄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배선윤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의식을 도스토옙스키의 무의식과의 연관성, 라스콜리니코프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배선윤에 따르면 라스콜리니코프의 꿈의 이면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가 엿보인다. 꿈 속에서 술 취한 사람들에게 맞아죽는 암말과 분노한 농노들의 손에 맞아죽은 도스토옙스키 아버지의 유사성을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부친 살해 욕망을 감춘 상태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꿈에 아버지의 죽음을 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하는 순간까지와 죄 없는 리자베타를 살해한 순간 이후, 두 시점 사이의 이질성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의식이 발현이다(배선윤,

2019).

이렇듯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에서 인물들의 죄의식은 다양하고 또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들처럼 인물들의 죄의식의 원인, 행태를 텍스트로부터 암시된 인물들의 감정과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근거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죄의식과 관련된 감정들을 전부 추출하여 시계열 그래프를 만듦으로써 죄에 대한 감정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죄의식이 분석되지 않은 다른 작품들(『백치』, 『악령』, 『지하로부터의 수기』)과 분석되었지만 특정 사건과 상황 위주로 분석된 작품들(『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더 활발한 논의와 이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논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자연어처리 이론

- 트랜스포머 모델(Transformer Model)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는 분류에 대한 특징을 따로 추출해야 하지만, 딥러닝 모델들은 텍스트 정보를 입력해서 문장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분류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 중 하나로, 특히 기계 번역, 문장 생성, 질의응답 등의 작업에 널리 사용된다. 트랜스포머는 주로 입력 문장을 인코더에 주입하여 문장을 특정 표현으로 변환한 후, 디코더를 통해 출력 문장을 생성하는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사용한다.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여러 개의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과 피드포워드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이루어져 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입력 시퀀스의 다른 위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위치의 정보를 잘 반영함으로써 문장 내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다.¹⁾

- 제로샷 분류(Zero-shot-classification)

제로샷 분류는 자연어 처리에서 정보가 할당되지 않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할 때, 이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지도학습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클래스에 대해서만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제로샷 분류는 기존의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클래스를 인식하고 분류한다. 제로샷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된 언어 모델과 훈련 데이터에 없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나 속성 정보가 필요하다.²⁾ 대표적인 사전 훈련 언어 모델로는 BERT, GPT, RoBERTa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활용된다.

1) Chen, S., Hong, Z., Liu, Y., Xie, G. S., Sun, B., Li, H., ... & You, X. (2022, June). Transzero: Attribute-guided transformer for zero-shot learning.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36, No. 1, pp. 330-331).

2) Xian, Y., Akata, Z., Sharma, G., Nguyen, Q., Hein, M., & Schiele, B. (2016). Latent embeddings for zero-shot classif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69-72).

Ⅲ. 실험 및 분석 과정

죄와 관련된 7가지 감정 분류 기준을 만들고, 각 감정이 텍스트에 몇 번 등장하는지 손쉽게 세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

(1) 감정 분류 기준 설명

우선 감정지수로 수치화할 죄와 관련된 감정으로 슬픔(грусть), 초조(тревога), 분노(злость), 행복(радость), 자기 파괴(саморазрушение), 도덕적 고통(сожаление), 자기 합리화(самооправдание) 7가지를 선택하였다.

- 슬픔(грусть) : 인물이 죄를 짓게 된 원인 혹은 죄의 대상(피해자)으로부터 유발된 인물의 슬픔을 의미한다. 혹은 자신의 죄를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슬픔을 의미한다.
- 초조(тревога) : 사회에서 범죄 혹은 비도덕적인 일로 취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 혹은 들킬 위험에서 발생하는 위기감을 의미한다.
- 분노(злость) : 죄를 짓게 된 원인 혹은 죄의 대상(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의미한다.
- 행복(радость) : 죄를 지으면서 얻은 쾌락 혹은 죄를 지음으로써 얻은 성취로부터 오는 행복을 의미한다.
- 후회(сожаление) : 자신의 도덕을 사회적 합의와 일치시켜 뉘우치는 인물의 경우 도덕적 고통과 반성을 의미한다. 도덕적 인식이 부족한 인물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행위를 후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자기 합리화(самооправдание) : 자신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죄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죄이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기 파괴(саморазрушение) : 죄를 지은 자신을 심각하게 비하하거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기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파괴적 사고의 경우를 의미한다. 죄를 지은 후 앞서 언급된 감정들 중 두 가지 이상이 혼재된 모순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도 자기 파괴로 분류한다.

(2) 감정 분석 과정 설명

본 연구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지하로부터의 수기』, 『악령』, 『백치』의 러시아어 원문을 사용하였다. 특수 기호 제거,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 각각 12902개, 5876개, 845개, 6458개, 4792개의 문장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트랜스포머의 pipeline 함수를 활용하여 zero-shot 분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전에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된 언어 모델을 선정한다. 이

후 제로샷 분류를 위한 후보 레이블과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면,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은 입력된 데이터와 레이블별 확률을 제시한다.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별 확률을 통해 해당 텍스트가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해석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한 모델은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으며, BERT에서 만든 러시아어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인 RuBERT를 사용하였다. 모델 구현은 Hugging Face의 Xformer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zero-shot-classification'과 'rubert-base-cased-nli'를 적용하였다.

IV. 감정 분석 결과

표 1 작품별 감정 레이블 순위

	『죄와 벌』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지하로부터의 수기』	『악령』	『백치』
1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2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3	тревога	радость	злость	злость	грусть

『죄와 벌』에서는 후회(32%), 자기정당화(26%), 걱정(14%)의 감정이 주로 등장하며 2부와 3부에 자기정당화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는 자기정당화(59%), 후회(14%), 기쁨(9%)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기정당화를 내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후회(30%), 자기정당화(29%)의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악령』에서도 자기정당화(34%), 후회(19%)의 감정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치』에서는 책 전반에 걸쳐 자기정당화(45%)의 감정이 나타나며 후회(22%)의 감정도 확인할 수 있다.

V. 작품별 결과 해석

(1) 죄와 벌

표 2 『죄와 벌』 감정 레이블 순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1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2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тревога
3	тревога	грусть	злость	злость	тревога	грусть
4	злость	злость	грусть	тревога	грусть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5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тревога	тревога	радость	злость	злость
6	гру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радо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7	радость	радость	радость	гру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радость

『죄와 벌』은 크게 6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챕터별로 감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죄와 벌』은 살인을 저지른 한 청년이 여러 일을 겪으면서 결국 자수하게 되는 이야기다. 1부에서 살인 장면이 나오고, 6부에서 자수를 하기 전까지 청년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지내게 된다.

1부를 보면 원래 대학생이었으나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월세도 밀린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등장한다. 그러던 차에 전당포의 욕심 많은 노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에게 격렬한 혐오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인을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1부의 끝에 이르러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전당포에서 노인을 살해하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살인 이후 갑자기 등장한 노인의 이복동생 리자베타의 등장으로 당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리자베타까지 살해한다. 근처에 거주하던 이웃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대처했으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성공한다. 급박한 장면이 연이어서 나왔던 1부를 감정 분석한 결과, сожаление가 33%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감정은 само оправдание으로 22% 정도다. 1부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끊임없이 전당포 노인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벌레 같은 노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죄 없는 노인의 이복동생을 죽이게 되면서 후회를 시작한다. 원하던 살인을 했지만 그 과정 때문인지 радость는 4%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다.

2부 초반부터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에 소환된다. 그러나 살인 건이 아닌, 월세 미납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백 충동을 참아낸다. 악몽과 오한에 시달리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의 지인인 라주미히이 찾아왔고, 전당포 노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치장이 니콜라이가 지목되었음을 알려준다. 2부 내내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제대로 먹고 자지 못해 계속 발열에 시달렸고, 의사가 그의 방을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상태였다. 그렇기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우연히 만난 경찰서기 자묘토프가 전당포 노인 살인사건 범인이 초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말해주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2부 후반에 1부에서 만났던 마르멜라도프가 마차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가족들을 만나 장례비를 지원했고, 창녀가 된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와 첫 만남을 가진다. 2부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감정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м으로 42%에 육박한다. 자기 정당화라는 감정이 1부보다 2부에 더 높게 측정된 것은 살인으로 인해 붕괴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이 방어 기제로 살인 정당화를 가져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сожаление가 29%로 뒤를 이었다. 반면, радость는 1부와 마찬가지로 3%에 불과했다. 나쁜 신체 컨디션, 무너져 가는 내면을 돌볼 틈도 없이 여러 사건이 전개되어 2부는 감정보다는 주인공이 아파한다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족 이야기가 나온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있는 도시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왔고, 여동생은 현재 약혼자가 있는 상태이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만한 동생의 약혼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부탁으로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들르고, 자묘토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한 것이 걸려 예심판사인 포르피리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포르피리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포르피리가 역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대학 시절 논문을 언급하며 양심에 대해 묻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양심이 있

는 자는, 자신의 오류를 의식한다면, 괴로워하겠죠. 이게 그에겐 별입니다, 징역과 별개로."라고 답하며 현재 자신의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포르피리는 라스쿨리니코프에게 유도심문을 계속하며 그를 떠보고 그의 친구 라주미힌은 분노한다. 3부는 라스쿨리니코프가 잠에서 깨자 낮선 사람인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3부의 감정 분석 결과는 2부와 흡사하다.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43%이며, сожаление는 29%다. 또한 감정 분석 결과의 내림차순도 비슷하며 그 수치도 비슷하다. 이는 다양한 사건이 있고 심지어 예심 판사인 포르피리에게 유도심문까지 당한 라스쿨리니코프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적발될까 하는 불안은 있어도 본질적인 반성은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의 내면이 변화하기 위해서 소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데이터로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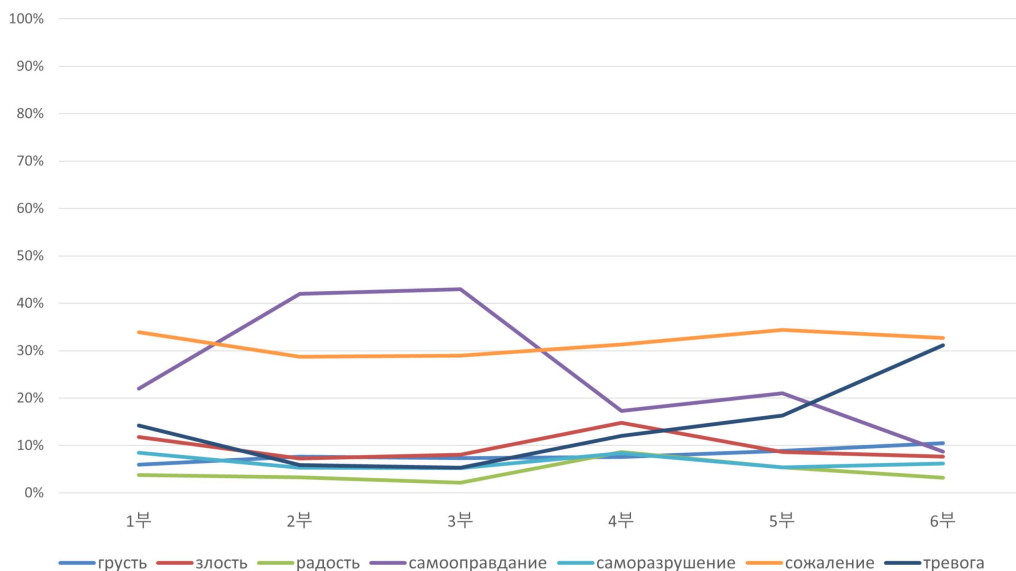
4부 초반에는 라스쿨리니코프와 동생의 약혼자, 루진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라스쿨리니코프의 동생인 두냐가 루진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부 마지막에 라스쿨리니코프의 방에 들어온 남자,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두냐에게 흑심을 품은 자로 자꾸 주인공의 가족 주변을 맴돈다. 라스쿨리니코프는 소냐를 찾아갔다. 소냐와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소냐에게 신약성경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자 소냐는 요한복음을 읽어준다. 자백을 결심한 라스쿨리니코프는 살인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소냐에게 했으나 이 대화를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엿듣는다.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포르피리를 찾아간 라스쿨리니코프는 포르피리로부터 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듣고, 불안을 느끼면서 자신을 체포하라고 말하지만 기존 용의자였던 칠장이 니콜라이가 본인의 죄도 아닌데 자백을 하면서 라스쿨리니코프의 자백 의지는 꺾인다. 소냐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챕터다. 직전 챕터에서 43%가 나온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17%로 줄었다. 반면, сожаление가 43%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소냐의 방에서 리자베타의 성경을 보았을 때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챕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감정 외에도 злость가 15%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분노는 자백하러 온 라스쿨리니코프에게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범죄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설명한 포르피리가 등장한 장면에서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부에서는 소냐의 아버지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이 열린다. 그곳에서 루진은 양심을 품고 소냐를 도둑이라고 모함하지만 레베카트니코프와 라스쿨리니코프의 도움으로 소냐는 누명을 벗는다. 그 후, 라스쿨리니코프는 소냐에게 정식으로 고해성사를 한다. 그는 자신이 나폴레옹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스스로 바랐고, 그 일환으로 살인을 했다고 말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 그러나 라스쿨리니코프는 소냐를 끌어들이는 것을 후회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한편, 소냐는 카테리나가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찾아 길거리로 나가지만 카테리나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부탁하면서 죽는다. 혼란을 틈타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소냐에게 접근했고, 라스쿨리니코프에게 그의 범행을 안다고 밝혀 그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라스쿨리니코프는 4부와 달리, 5부에서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기를 설명해주며 소냐를 완전히 끌어들이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직 자백할 마음이 100%가 아니었던 탓에 сожаление가 34%로 높게 측정되었다. 한편,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21%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주인공인 라스쿨리니코프보다 두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루진의 감정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тревога 역시 16%로 3부부터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라스콜리니코프의 자기 정당화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초조함이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부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이다. 다시 라스콜리니코프를 만난 포르피리는 그에게 살인 사건의 범인이 맞지 않냐고 하며 그를 압박한다. 한편, 스비드리가일로프 두냐에게 마지막 구애를 한 뒤 끝내 거절당하자 권총으로 자살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할 준비를 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마친 후 소냐에게 갔으나 곧장 나와 센나야 광장으로 갔다. 그리고 대지에 입을 맞추고 경찰서로 들어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6부가 종료된다. 6부에서 마침내 자수할 준비를 마친 라스콜리니코프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고, 예심 판사가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어쩌면 자백은 백해무익한 상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수를 결심하면서도 이에 대한 후회를 계속 느낀다. 그래서 6부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감정은 сожаление다. 또한 자수를 결심함에 따라 자기 정당화 감정은 9%로 크게 하락했다. 대신,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초조함을 느끼는데 따라서 초조함은 후회와 거의 비슷하게 31%로 측정된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는 грусть 역시 느끼는데 이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감정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 『죄와 벌』 감정 레이블 변화



감정 중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를 보면, 전반부에는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후반부에서 점점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애초에 살인 자체가 자신이 남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에서 비롯되었기에 초반에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포르피리의 압박과 소냐의 충고를 들으면서 тревога 수치가 점점 올랐고 이것이 고조될 때 비로소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에서 сожаление가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죄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자백을 결심한 것을 후회하는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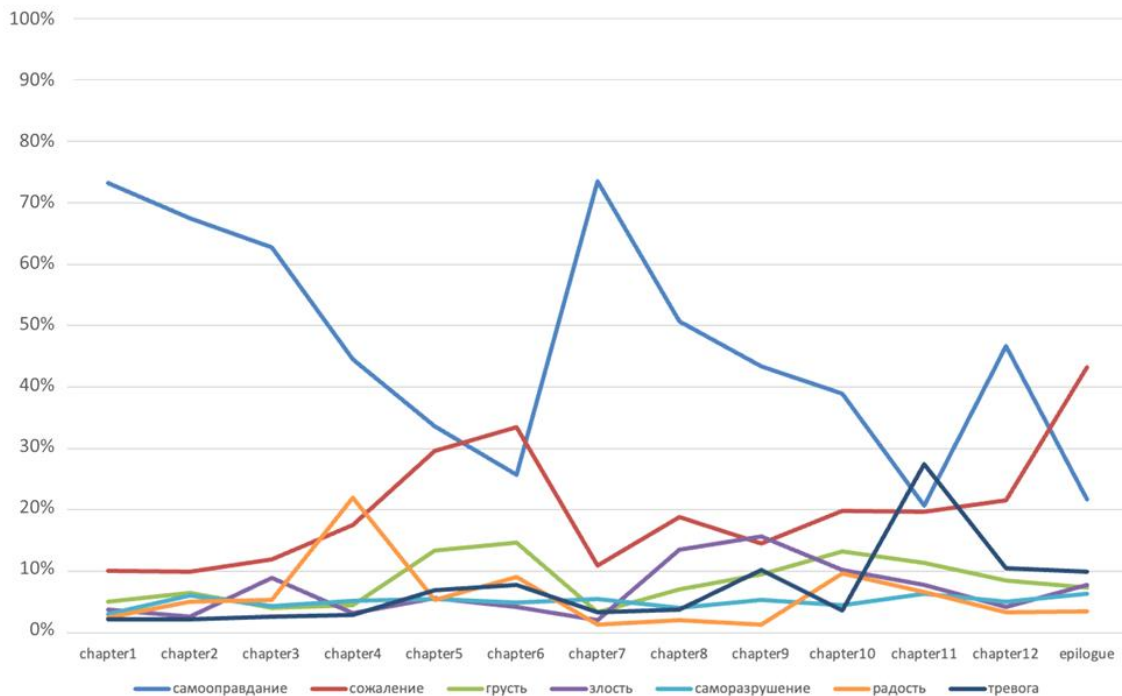
(2)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표 3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감정 레이블 순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1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2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злость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3	грусть	грусть	сожаление	радость	грусть	грусть
	7부	8부	9부	10부	11부	12부
1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2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3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злость	злость	радость	тревога	тревога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은 총 4부 12권 구성으로, 카라마조프 일가가 수도원에 유산 분배문제를 다투기 위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1부 3권, 이반이 '대심문관'의 우화를 통해 신이 없는 세상에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상의 핵심을 설파하는 2부 3권, 표트르가 살해당하고 드미트리가 범인으로 몰리는 재판이 벌어지는 3부 3권, 그리고 이야기가 정리되고 스메르자코프가 진범임을 말하지만 결국 드미트리가 시베리아로 보내지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옥계획을 세우며 가족 간의 갈등이 완화된 4부 3권과 에필로그로 나뉜다.

그림 2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감정 레이블 변화



각 챕터의 감정지수 측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자기 합리화)의 변화 양상이다.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는 1권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6권에 이르기까지 하향선을 그린다. 그러나 7권에서 조시마 신부의 죽음 이후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는 것을 둘러싼 수도원 내부의 소동과 양파뿌리의 우화를 통해 그루셴카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알료사, 그리고 8권에서 표트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다시 비중이 올라가고, 다시 하락하다, 드미트리의 재판이 벌어지는 12권에서 반등한 후 에필로그에서 해소된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이반의 사상이 확실히 합리화되는 '대심문관' 챕터가 있는 5권은 상당히 낮은 정도의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심문관'의 우화의 화자는 무신론자 이반이고, 대심문관은 그의 분신이라 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대심문관'의 우화 자체가 이반의 사상에 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초인사상' 비판이라는 해석이다. 즉 표면적으로 이반은 본인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비판이 있음을 이야기는 종래의 해석을 감정지수의 수치가 뒷받침하고 있다.

소설을 통틀어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자기 합리화)의 줄어든 비중을 채우는 감정은 сожаление(후회), 4권에 한하여 радость(기쁨), 8권과 9권에서 злость(화남), 11권에서의 тревога(짜증)이다. 6권에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자기 합리화)를 밀어내고 сожаление(후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알료사에게 부끄러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시마 장로,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에 나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죄를 고백하고자 하지만 결국 장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낯선 손님의 감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권에서 сожаление는 하락하지만, 다시 천천히 증가하며 드미트리의 시베리아에서의 탈옥을 계획하는 에필로그에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를 다시금 밀어내고 최고점을 찍는다.

8권과 9권에서의 злость(화남)의 높은 비중은 드미트리의 감정에서 나온다고 해석된다. 드미트리는 8권에서 아버지 표트르와 다투고, 9권에서 표트르를 살해한 것이 자신이 아님을 항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그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불리한 증언들을 내뱉은 드미트리는 결국 체포되고 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미트리의 감정이 злость의 높은 비중을 만들어 내고 있다.

11권은 이반과 표트르를 죽인 진범 스메르자코프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이다. 이반은 드미트리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가 진범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트르의 장례식에서 스메르자코프를 만난 이반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그와 다시 대면한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그는 이반에 사상에 따라 표트르를 죽였음을 자백하고 자신에게도 이반과 같은 피가 흐름을 고백한다. 진실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반은 이전의 그의 행동과는 달리 얼어 죽어가는 농부를 돕는다. 11권의 높은 수치의 тревога(초조)는 이 부분이 이반의 생각이 스메르자코프라는 타인에 의해 극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라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3) 지하로부터의 수기

표 4 『지하로부터의 수기』 감정 레이블 순위

	1부	2부
1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2	сожаление	грусть
3	злость	злость
4	грусть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5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тревога
6	радо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7	тревога	радость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지하인의 독백으로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지하인의 생각이 전개된다. 실질적인 줄거리가 없는 1부와 달리 2부는 지하인이 겪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다. 또한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체르니셴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작품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해당 작품에 따르면 인간은 선한 행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악행을 그만 두게 되므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역시 시베리아 유형 전에는 푸리에주의에 심취하였으나 시베리아에 온 뒤로 허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바뀐 그의 사고를 소설에 담은 것이 『지하로부터의 수기』이다.

1부는 지하인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인간을 분리하며 다른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열거한다. 지하인에 따르면, 인간은 체계와 추상적인 결론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세상의 이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한다. 또한, 쾌감은 자신의 굴욕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며 일반 사람과 다른 자신에 완전히 몰입한다. 1부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감정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이다. 45.7%로 측정된 이 감정은 지하실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만 고결하다고 느끼는 지하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다. 가장 낮게 측정된 감정은 тревога로 3.9%다. 타인과의 교류도 없으며,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초조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부는 지하인이 지하 밖으로 나가면서 지하인의 독백만으로 이루어지던 서술이 비로소 타인에게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창회에 나갈 일이 생긴 지하인은 자신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무시당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모임에 나간다. 그의 예상대로 그는 온갖 무시를 당하고 사창가를 찾아가 창녀 리자에게 위선자의 태도를 취한다. 심지어 좋은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는데 하필 다음날 자신이 경제적 문제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 리자가 나타나서 그의 정신승리가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지하인은 리자에게 화풀이를 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는 12.0%로 추락한다. 동창들에게 무시당하던 모욕의 순간으로 인해 сожаление가 39.2%로 높게 나타났고, грусть와 злость가 뒤를 이었다.

소설에서 지하인은 도스토옙스키의 허무주의적 인간 군상을 잘 보여준다. 타인을 속물로 취급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는 데에는 성공했기에 1부에서 자기 정당화 수치는 45.7%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자기 객관화 수치는 12.0%로 하락하고 정신 승리를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스스로 나간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다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 자신보다 비참한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알려준 것에 대해 후회를 하면서 후회에 대한 수치가 2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악령

표 5 『악령』 감정 레이블 순위

	1부	2부	3부
1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2	радость	злость	злость
3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грусть
4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тревога	тревога
5	гру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6	тревога	грусть	радость
7	злость	радость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악령』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어 구분지어 감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악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 2부에서는 3부에 실행될 범죄를 준비하는 구간이다. 그 이후, 3부에는 그 간 준비해온 범죄를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온다.

『악령』은 도스토옙스키의 정치 소설이다. 소설의 제목인 『악령』은 당시 유행했던 허무주의를 상징한다. 주인공인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는 시갈료프의 사상인 세계 체제론을 이용하여 거사와 과업이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스스로를 바쿠닌식 무정부주의를 구현하는 혁명가로 설정하고, 스타브로킨에게 신이라는 역할을 맡겼다. 그 후, 네차예프 사건과 동주되도록 설정된 샤토프 살인을 통해 민중 역할을 하는 5인조를 공범으로 묶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 『악령』으로서 그의 존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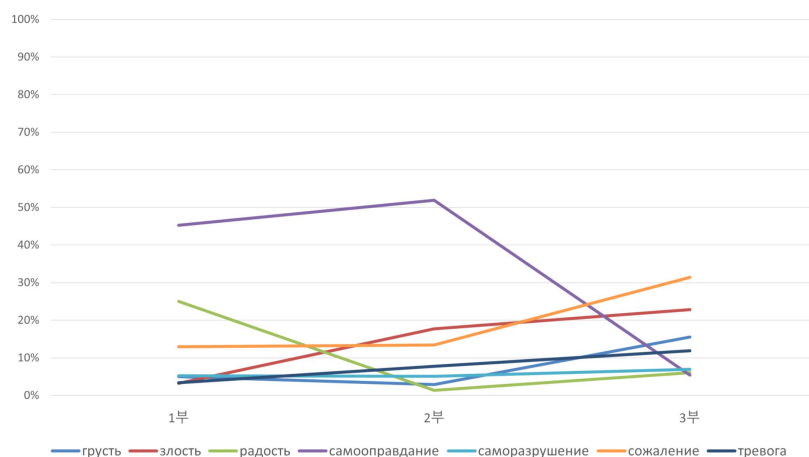
1부의 마지막에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와 스타브로킨이 등장하고, 그 전까지는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의 아버지인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영향력 있는 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는 이것저것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골벽적하지만 평화로운 장면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1부에서 가장 높게 나온 감정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로 45%에 육박한다. 이는 소설의 흐름과는 별개로 여러 실패를 겪고도 꺾이지 않는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에 대한 감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로 인해 радость 25%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유년 시절, 잠시 나타났던 스타브로킨이 여러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만 그가 우아하게 사과하고 마을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злость는 3.2%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

2부는 본격적으로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와 스타브로킨이 마을을 장악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사교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다. 그 둘 외에도 키릴로프 등 외부 인물이 마을로 유입되면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부에 스테판 베르호벤

스키에 집중되어 있던 서술이 마을 전체로 확장되어 폭풍 전야 같지만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마을의 모습을 조명한다. 2부 역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51.9%로 가장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는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의해 나왔던 1부와는 달리, 외부 인물의 유입으로 불안감을 느끼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감정으로 분석된다. 가령, 도지사의 경우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도지사 부인인 율리야를 완전히 장악하여 불안감을 느끼지만 신세대인 똑똑한 청년이 이것을 이용해서 일을 꾸미지는 않을 것이라 애써 외면한다. 한편,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의 가식 밑에 추악한 모습을 하나 둘씩 알게 되면서 злость를 느끼는 인물이 등장한다. злость는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감정으로 17.7%로 측정되었다. 아들의 섬뜩한 모습을 알게 된 스테판 베르호벤스키 등의 인물이 이에 해당된다. 마을에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지만 이전의 평화가 깨지면서 радость는 1.3% 수준으로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3부에서는 여러 사건이 쉼 없이 발생한다.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는 도지사 부인을 조종하여 성대한 파티를 연다. 그러나 파티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고, 그 틈을 타 표트르는 마을에 불을 질렀으며 레바드킨과 마리아는 살해당한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배후인 스타브로킨의 정부로 몰린 리자베타 역시 살해당한다. 또한 표트르는 샤토프가 밀고할 것으로 두려워하여 5인조를 이용하여 그를 살해하고 모두를 공범으로 만든다. 그에 그치지 않고 키릴로프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자살하도록 종용한 뒤 그 자신은 잠적한다. сожаление가 31.4%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 죄를 저지르고 후회조차 하지 않은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은연중에 후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샤토프를 함께 살해한 5인조 역시 살해 직후 후회를 느꼈고, 이전에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와 스타브로킨을 신뢰하던 이들도 끔찍한 수준의 고통을 느끼며 그를 신뢰하던 순간들을 후회했다. 또한 그들은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злость가 22.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리자베타가 군중에 의해 살해당하던 순간에 최고점을 찍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없던 마을 사람들이기에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는 5.3%로 측정되었다.

그림 3 『악령』 감정 레이블 변화



소설에서 변동이 심했던 감정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이다. 자기 정당화를 나타내는 이 감정은 1, 2부에는 7가지 감정 중에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나 마지막 챕터인 3부에 들어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악령』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식해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불길함을 느꼈다고 해도 직감을 믿을 수 없기에 자기 객관화라는 감정으로 불안감이 드러났다. 그러나 3부에 폭주한 악령을 보고, 비로소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이들은 그 전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게 됨으로써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끝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는 감정 없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일삼는, 말 그대로 악령같은 인물이므로 그의 감정은 측정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백치

표 6 『백치』의 감정 레이블 순위

	1부	2부	3부	4부
1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2	сожаление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сожаление	сожаление
3	грусть	грусть	злость	грусть
4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гру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5	радость	зло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радость
6	злость	тревога	тревога	злость
7	тревога	радость	радость	тревога

『백치』의 주인공은 두 명으로,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쉬킨은 백치, 파르펜 세묘노비치 로고젠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인물이다. 로고젠의 죄, 살인은 마지막 챕터의 후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나머지 챕터에서의 감정들은 다른 인물들의 사소한 사건이나 잘못, 백치 미쉬킨의 감정 위주로서 등장하게 된다. 인물들이 사랑과 결혼, 가족 문제로 인한 말싸움과 몸싸움을 반복해서 грусть, злость, саморазрушение, тревога, радость 가 모두 0.02~0.09 사이의 비슷한 확률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과 가족 문제로 인한 내적/외적 갈등 반복은 많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5개 이상의 감정이 비슷한 확률로 측정되는 현성이 『백치』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메인이 되는 살인죄 자체가 마지막 챕터 후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 이후에는 인물들이 서로에게 사과하고 변명하는 과정이 등장하므로, сожаление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돌아가며 0.3~0.5 정도의 높은 연관도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쉬킨 또한 백치로서, 자신의 어리숙함이나 실수를 계속 사과하고 자신의 정신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인죄와 직결되는 마지막 챕터를 살펴보면, 로고젠은 자기가 사랑했던 나스따시아 필리포브나를 살인하고, 그녀를 두고 로고젠과 대치해왔던 미쉬킨은 이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정신병이 심화된다. 그러나 마지막 챕터는 앞선 챕터와 감정지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로고젠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후 감정이나 저지르는 과정이 묘사되지 않았고, 살인을 목격한 미쉬킨 또한 어떤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챕터의 감정지수에

주인공의 죄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도스토옙스키가 인물들의 감정보다는, 순수한 영혼 백치의 도전이 성공하지 못하고 나스따시야가 죽어버린 상황을 위주로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죄'에 관한 감정들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제로샷 분류를 적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각 소설의 목차별로 슬픔(грусть), 초조(тревога), 분노(злость), 행복(радость), 자기 파괴(саморазрушение), 도덕적 고통(сожаление), 자기 합리화(самооправдание)의 감정이 나타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죄와 벌』에서는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와 сожаление가 가장 많이 나왔다. 주인공은 초반 자신이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오만에 휩싸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나 그 이후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는 줄어듦과 сожаление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самооправдани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줄어든 비중을 채우는 감정은 сожаление, злость, тревога 등이다. 조시마 장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 드미트리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 자기 합리화의 감정보다 후회, 화남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1부에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지하인이 동창회를 하면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해서 45.7%에 육박했던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12.0%로 하락한다. 『악령』에서는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1, 2부에서 7가지 감정 중에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초반에는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다가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계획한 범죄를 보고,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самооправдание가 5.3%로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백치』에서는 сожаление와 самооправдание 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나머지 5가지 감정들은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슷한 확률로 등장하였다. 이는 주인공의 살인죄가 소설 끝자락에 등장하는데다가, 도스토옙스키가 살인과 관련된 주인공들의 심정 묘사를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정지수가 살인과 관련 없는 인물들의 사소한 갈등과 그 갈등에서 발생한 죄의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문체는 감정적으로 강렬하고 계속 이어지는 인물의 심리 묘사가 특징적이며, 당시 러시아 사회의 문제와 인간의 복잡한 죄의식을 심도 있게 다룬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죄의식과 도덕적인 갈등을 다루며 주인공들은 죄의식과 용서, 자비, 죄악의 충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습이 나타난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장황한 심리 묘사가 이어지기에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감정을 정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감정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통해 문학 연구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감정 분석을 통해 작품의 감성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러시아 문학 텍스트 분석은 작품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한 심화 탐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 기술 적용을 통해 소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소설은 문체가 다양하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한다면 더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훈. (2018),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보는 부친살해와 죄의식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국내석사 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 배선윤, (2019),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의식에 대한 정신분석적 분석." 현대정신분석, 21(1), 41-78.
- 도스토옙스키. (2012). 죄와 벌 2 (pp. 501-509). n.p.: 민음사.
- 도스토옙스키. (2021). 악령 3 (pp. 438-450). n.p.: 민음사
- 도스토옙스키. (2010). 지하로부터의 수기 (pp. 201-211). n.p.: 민음사
- 전수영, 이윤진. (2021). 단어 임베딩을 통한 고전 문학 감정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985-996.
- Chen, S., Hong, Z., Liu, Y., Xie, G. S., Sun, B., Li, H., ... & You, X. (2022, June). Transzero: Attribute-guided transformer for zero-shot learning.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36, No. 1, pp. 330-338).
- Xian, Y., Akata, Z., Sharma, G., Nguyen, Q., Hein, M., & Schiele, B. (2016). Latent embeddings for zero-shot classif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69-77).